

쓰기	2. 문단쓰기	⑨ 상대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	연습문제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

1. 다음은 초희가 얼마 전 퇴직하신 할머니께 드리는 생신 축하 카드입니다. <보기>에서 적절한 문장을 순서대로 골라 빈칸에 쓰세요.

—<보기>—

- ㉠ 할머니, 안녕? 나 손녀 초희. 잘 지냈어?
 ㉡ 안녕하세요, 할머니? 손녀 초희입니다. 그간 건강하셨어요?
 ㉢ 할머니 생신을 축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씁니다.
 ㉣ 퇴직 후에도 소녀 같은 모습으로 밝게 지내시는 할머니를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.
 ㉤ 지금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시 한 번 생신 축하 드려요.
 ㉥ 내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힘내세요!

(_____)

(_____)

(_____)

(_____)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㉡-㉢-㉣-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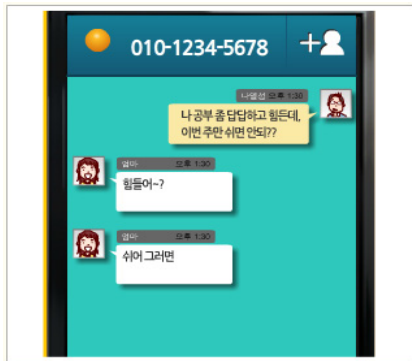
해설 : 나이를 고려하여 할머니께는 높임말을 써야겠지요? 그래서 반말로 된 ㉠이 아닌 ㉡으로 시작합니다. ㉢도 높임말을 사용하면서 카드를 쓴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적절해요. ㉣은 할머니가 여성임을 고려하여 ‘소녀 같은 모습’이라는 말을 한 것이니까 적절하지요. ㉤도 다시 한 번 생신 축하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으니 적절합니다.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하신 할머니께 내년에 이직을 하실 거라는 ㉥의 말은 적합하지 않아요.

쓰기	2. 문단쓰기	⑨ 상대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	연습문제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

[2~3] 다음 화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.

2. 이 매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나요?



- ① 전자우편
- ② 문자 메시지
- ③ 온라인 대화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문자 메시지

해설 : 여러분이 자주 보는 휴대폰 화면이지요? 휴대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글을 보내는 이러한 매체를 문자 메시지라고 해요.

3. 이러한 매체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.



- ① 준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.
- ②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.
- ③ 컴퓨터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.
- ④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.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③

해설 : ①: 입력할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준말을 쓰기도 합니다.

②: 휴대폰은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전자 우편에 비해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.

③: 문자 메시지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.

④: 준말과 마찬가지로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.

쓰기	2. 문단쓰기	⑨ 상대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	연습문제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

4.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체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.



아침에 아버지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을 낸 것 같아 죄송스럽네. 내가 왜 짜증을 냈는지, 얼마나 죄송하게 생각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. 직접 말씀 드리거나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……. 어떤 매체가 좋을까?

- ① 온라인 대화 ② 문자 메시지 ③ 전자 우편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전자우편

해설 : 전자우편: 문자 메시지에 비해 비교적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긴 글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.

문자 메시지: 짧고 간단한 글을 전달하는 데 적합해요.

온라인 대화: 시간을 들여 천천히 생각하여 자세한 글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.

5.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.

<보기>

눈

코

입

얼굴

소라 : 어머, 저 남자 정말 잘 생겼다!

초희 : 누구? 저 사람? 난 별로인데?

경주 : 완전 잘 생겼는데?

에이, 소라 너 (이/가) 너무 높다!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눈

해설 : 사람이나 사물을 보는 기준이 높은 걸 두고 '눈이 높다'라고 말해요.

쓰기	2. 문단쓰기	⑨ 상대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	연습문제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

6. 다음 대화를 보고, 빈칸에 들어갈 사자성어를 골라 보세요.



- ① 금상첨화(錦上添花)
③ 다다익선(多多益善)

- ② 설상가상(雪上加霜)
④ 역지사지(易地思之)

정답 및 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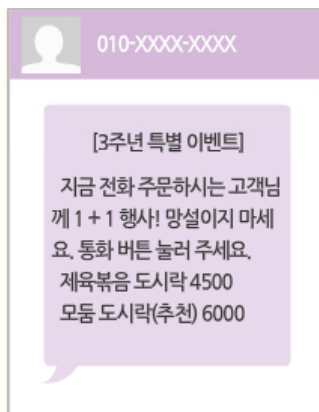
정답 : 금상첨화(錦上添花)

해설 : 금상첨화(錦上添花):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,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. 원래도 예쁜데 매니큐어까지 칠해서 더욱 예쁜 손을 나타내는 말로 적합하지요?
설상가상(雪上加霜):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,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에요.

다다익선(多多益善):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뜻이에요.

역지사지(易地思之):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에요.

7. 다음은 한 도시락 배달 업체에서 고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. 이 메시지를 작성할 때 고려할 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 보세요.



- ① 고객님께 드리는 메시지니까 높임말을 써야지.
② 문자 메시지니까 필요한 내용만 간단히 써야지.
③ 도시락 가격에 '원'자를 쓰지 않아도 뜻은 통할 거야.
④ 모듬 도시락을 추천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지.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④

해설 : 모듬 도시락에 '추천'표시가 되어 있지만, 추천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아요. 문자 메시지는 제한된 용량 내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이지요.

쓰기	2. 문단쓰기	⑨ 상대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	연습문제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

8. 다음은 고기잡이를 나간 춘배 씨를 걱정하며 그의 아내와 아들이 나눈 대화입니다.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골라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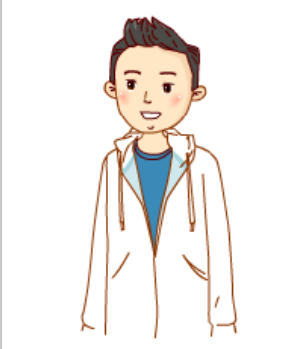


애야, 너희 아버지가 새벽에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저녁때가 되도록 안 들어오신다.

네? 오늘 파도가 높다고 하던데, 고기잡이를 나가셨단 말이에요?

그러게 말이다, 그 양반이 고집이 세잖니.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아닌지 걱정이되는구나.

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무□□이 회□□이라잖아요.



- ① 자식 ② 소식 ③ 소리 ④ 소원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②

해설 : ‘무소식이 희소식’이라는 말은 소식이 없는 것은 무사히 잘 있다는 말이니, 곧 기쁜 소식이나 다름없음을 이르는 말이에요. 아무 소식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로 예로부터 종종 쓰이는 속담이지요.

쓰기	2. 문단쓰기	⑨ 상대나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	연습문제
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

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

[9~10] 다음은 사내 건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저는 이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여직원 중 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여자 화장실 사용과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

현재 회사 건물에는 1층과 4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화장실이 원래 남자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남자 직원들이 착각을 하고 이 화장실을 사용하곤 합니다.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, 화장실 이용 중에 남자 직원들을 마주칠 때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.

㉑어떤 남자 직원분은 도리어 저에게 왜 여기에 있느냐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.

저희 여직원들의 불편함을 ㉠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, 부디 여자 화장실 표시를 분명히 해주세요. 아니면 다른 공간에 여자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

9. 밑줄 친 ㉠과 관련된 표현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.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③

해설 : 도리어 화를 내는 행위를 통해 ‘적반하장’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10. 밑줄 친 ㉠에 대한 설명으로 **바른 것**을 고르세요.

정답 및 해설

정답 : ③

해설 : 강 건너는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의미하지요. 거기서 불이 나건 말건 나에게는 별 상관없어요. 그처럼 ‘강 건너 불구경하듯’이라는 속담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.